

신세계, 컬링 대표팀에 포상금 2억4000만원

‘영미 신드롬’ 컬링팀에 포상·격려금

신세계그룹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전해준 컬링 국가대표팀에게 총 2억4000만원의 포상금과 격려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영미 신드롬’으로 상징되는 ‘아름다운 도전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자는 취지다.

특히 컬링 대표팀이 하나가 되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는 점을 고려해 남녀 및 혼성 대표팀 선수와 코칭스태프 전원에게 포상금 및 격려금을 전달한다.

신세계는 김은정 선수 등 남녀 국가대표 선수 12명 포함 총 21명에게 각각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이후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의 바쁜 일정을 감안해 전달 날짜와 장소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여자컬링 대표팀이 2일 경북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온 선수들의 ‘하 나된 열정’에 모든 국민이 감동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여자 국가대표팀의 눈부신 성공스토리를 발판 삼아 제2, 제3의 ‘팀킴’이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와 컬링의 인연은 2012년 신세계와 대한컬링경기연맹이 공식 후원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이대목동병원 대한신경초음파학회장에 김용재 교수

이대목동병원은 김용재 신경과 교수(사진)가 지난 1일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신입 회장에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대한신경초음파학회는 초음파에 대한 지식과 수기를 습득하여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 진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3월에 창립됐으며 창립 이후 학술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신입 회장을 맡게 된 김용재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국내에 몇 안 되는 미국신경초음파(ASN) 인증의 자격을 가

지고 있다.

특히 환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을 발생 초기, 빠르고 집중적인 근거 중심의 치료 시스템을 통해 완치율을 높임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강좌와 건강상담을 통해 뇌졸중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김용재 교수의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신입 회장 정식 취임식은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는 3월 10일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새로 나온 책

마카로니 프로젝트

문학동네/김술 지음



‘마카로니 프로젝트’는 201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내기의 목적’이 당선되어 등단한 김술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그는 등단 후 6년 동안 기발하고 밀도 높은 두 권의 소설집 ‘암스테르담 가리지 세일 두번째’, ‘망상, 어둠’과 두 권의 장편 소설 ‘너도밤나무 바이러스’, ‘보편적 정신’을 쉬지 않고 펴내며, 한국문학의 ‘상상 아카이브’임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그의 세 번째 장편소설인 이 책은 자본주의의 세계에서 회사란 무엇인지, 이 세계에서 온전하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윤리가 아닌 생존의 영역에서 날카롭게 묻는 소설이다.

‘마카로니 프로젝트’는 회사의 일방적인 공장 폐쇄 선고와 그에 맞선, 혹은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냄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려는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치밀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작가 스스로가 20년 가까이 회사생활을 해온 만큼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간극이나, 각 부서 사이의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 무엇보다 자신의 생계를 움켜쥔 회사라는 거대한 힘 앞에 각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파헤치는 솜씨가 탁월하다.

264쪽, 1만3000원

/신정원 기자 sjw1991@

왕을 위한 홀로그램

문학동네/데이브 에거스 지음



뉴욕 문학계에서 독창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데이브 에거스는 책을 통해 우리 시대 중년의 희비극과 그들의 고통스러운 방황, 중산층의 몰락, 글로벌리즘의 아이러니를 재기 넘치는 유머와 도발적인 풍자로 이야기한다. 주인공 앨런의 모습은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이 작품을 통해 그의 고난을 함께하는 우리에게 시원한 웃음을, 또 슬프고 진한 인상을 남긴다.

400쪽, 1만4500원

/신정원 기자

신점 [神占] 운세

3월 5일 (음 1월 18일)

힐링운세 (www.healingunse.com) 060-800-8877



60년생 큰 소원도 능히 성취할 것입니다. 72년생 시간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84년생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96년생 여행도중 꿈속에 그리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61년생 매매는 이루어지나 큰 이익은 없겠습니다. 73년생 타인의 재물에 욕심부리지 마세요. 85년생 지나친 신경은 건강을 해칩니다. 97년생 순리대로 진행하세요.



50년생 조금만 더 기다림이 좋을 듯 합니다. 62년생 평생의 숙원이 목전에 있습니다. 74년생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86년생 심신이 고달픈 일이 생깁니다.



51년생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3년생 북서쪽으로 곧장 가세요. 75년생 부부금슬이 좋아집니다. 87년생 매사 대길한 운입니다.



52년생 명예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64년생 매사에 헛물켜지 마세요. 76년생 점점 호전되는 운세입니다. 88년생 매사 노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세요.



53년생 형제자매와 도모하는 일은 만사 대길합니다. 65년생 문서관계를 조심하세요. 77년생 귀하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89년생 명예가 오르니 관록에서 빛이 납니다.



54년생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얻게 됩니다. 66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세요. 78년생 방향은 끝, 새로운 시작입니다. 90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55년생 한해 중 가장 운이 좋은 날입니다. 67년생 재는 크고 이롭고 관은 성공합니다. 79년생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91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십시오.



56년생 투기 사업에 손대지 말고 저축하세요. 68년생 선택의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80년생 집을 기준으로 남향이 길합니다. 92년생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57년생 경거망동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세요. 69년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향상됩니다. 81년생 사소한 다른 일이 생깁니다. 93년생 하는 일이 잘 풀립니다.



58년생 귀인이 도와 해결됩니다. 70년생 다른 것에 한 눈 팔지 마세요. 82년생 가족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94년생 재능이 있으니 늦게라도 원하는 바는 이루어집니다.



59년생 새로운 자세로 일에 임하게 됩니다. 71년생 조금해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83년생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95년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면 끝내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전화운세상담 홍카페 10분 무료상담 이벤트!
홍카페 접속 후 회원가입 시
추천인 아이디어에 METRO 입력하면 10분 무료상담!!
타로, 연애, 심리 1:1 전화상담 홍카페
<www.hongcafe.com>

		3	7	1				
3		6	2			4		1
		2				5		
2		4				6		5
1				7				3
			3					
9			5					8
8			6					7
	3	1	2			9	4	

8			7		5			9
		6				4		
	5			1				3
2			8		3			5
	4	3				7	9	
5			4		9			6
	6			2				8
			2				9	
3			1		4			2

스도쿠 정답

9	7	6	8	2	1	5	8	4
2	5	1	4	9	6	7	3	8
8	2	4	5	3	1	9	6	7
5	6	2	1	8	9	5	7	3
5	8	9	6	1	7	4	2	8
6	4	5	9	7	8	2	1	3
1	2	7	5	6	2	9	8	4
2	9	8	1	4	6	5	7	3
2	1	9	7	6	1	5	8	4
4	1	6	9	8	5	2	7	3
7	8	5	2	4	6	9	1	3
9	2	4	6	1	7	8	1	5
8	6	2	1	5	2	9	7	3
5	7	1	4	9	8	2	6	3
1	2	8	2	1	9	7	5	6
1	5	7	8	6	9	2	4	3
6	9	2	5	7	4	1	8	3

문제 제공= 보너스

김상희의四季

추위도 인생도 풀리는 경칩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날씨를 빼놓기는 힘들다. 특히나 올 겨울처럼 강추위가 몰아친 때에는 더 그렇다. 단순한 감기는 물론이고 심하게 열이 나는 독감도 흔하게 앓기 마련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원인이다.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졸중이나 뇌경색, 심혈관 관련 질환자가 많아진다. 겨울 추위가 완연하게 풀리는 시기는 경칩이 될 것이다. 경칩이 지나면 얼었던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추위가 물러가는 걸 반기는 의미이다. 경칩은 24절기 중의 3번째 절기이다. 동지가 지난 뒤 74일째 되는 날이고 양력으로는 3월5일 쯤이다. 겨울 추위에 몸을 움크리고 잠자던 만물이 깨어나는 시기가 바로 경칩이다. 겨울철에 세력을 떨치던 대륙성 고기압이 힘을 잃는 시기이고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봄이 찾아온다. 경칩(驚蟄)은 놀랄 경(驚)자와 벌레 칩(蟄)자를 쓰는데 이는 날씨가 풀리면서 겨울잠을 자던 곤충들이 움직인다는 걸 알려준다. 이제 경칩이 다가오니 겨울 추위도 물러갈 것이다. 날씨가 풀리고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살기에 훨씬 편안하다. 그리고 보면 풀린다는 말에는 사람들의 수많은 기대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풀린다는 뜻을 사전에서 보면 ‘해제되어 자유롭게 되다’ ‘해결되다’라고 되어있다. 어느 것이든 풀린다는 것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풀리기를 항상 고대한다. 겨울에는 날씨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사업을 하다 자금이 꼬이면 돈이 돌아서 문제가 빨리 풀리기를 바란다. 택배로 물건을 받았을 때도 내용물이 무엇인지 보려면 포장 묶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 풀린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아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예부터 사람의 길흉화복을 내다볼 때는 풀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 언제부터 일이 풀릴 것이냐 또는 어디서부터 일이 풀릴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임을 알려줬다. 이렇게 풀린다는 말은 사람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했다. 경칩은 겨울이 물러가고 추위가 풀리는 시기이다. 봄이 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얼마나 경칩을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이 된다. 경칩은 그렇게 겨울이 물러간다는 것만으로도 큰 환영을 받는 절기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